

또래 지위 및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의 빈도, 지속 시간과 쟁점 유형

김송이 · 박경자

연세대학교 아동 · 가족 학과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들간에 발생하는 또래 갈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의 빈도, 갈등 지속 시간, 갈등 쟁점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2차적인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초등학교 두 곳에서 148쌍의 4학년 아동을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선정하여 짹을 지위 관찰 단위를 구성하였다. 짹지워진 두 명의 아동이 제한된 공간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는 동안 발생한 갈등을 관찰하는 실험실 관찰법을 사용하여 또래 갈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또래 갈등은 친구나 급우간의 상호작용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갈등 발생 빈도는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인기-보통 아씨보다 거부-보통아씨에서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하였다. 갈등 발생 빈도와 갈등 지속 시간에서 아동의 성과 친구 관계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서, 여아의 경우 급우상보다 친구상에서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더 빨리 종결되었다. 이에 반해 남아의 경우에는 친구상과 급우상 간에 갈등 발생 빈도는 비슷하였지만, 급우간의 갈등보다 친구간의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 또래 갈등은 주로 생각에 대한 불일치와 제안이나 도움의 거부로 인해 발생하였다. 갈등 쟁점은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인기-보통아씨보다 거부-보통아씨에서 권리 주장하기로 인한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주요어: 또래 갈등, 또래 지위, 친구 관계

여성 취업의 증가와 조기 교육 등의 영향으로 아동들은 일찍부터 또래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

이 논문에 대한 연락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아동 · 가족학과 / T : (02)2123-3152 / kjpark@yonsei.ac.kr로 하기 바람.

어, 또래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과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 특히 또래 갈등은 개인들간에 목표, 의도, 욕구 혹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Shantz, 1987), 성인 뿐 아니라 아동간의 일상 생활에서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러한 갈등의 경험이 아동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Hartup & Laursen, 1993; Putallaz & Sheppard, 1992).

이에 주로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른 또래 갈등, 그리고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자료에 기초해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일환으로 갈등 해결방식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또래 갈등에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또래 갈등이 또래와의 이원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고려할 때,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또래 갈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갈등 해결방식에 관련된 연구가 일부 보고되었으나(김송이·박경자, 2001; 배선영, 2000; 한제인, 1994), 아직 아동들이 경험하는 또래 갈등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초등학교 아동들이 얼마나 자주 또래 갈등을 경험하고, 그러한 갈등이 얼마나 오래 동안 지속되는지,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은

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또래 갈등 상황의 특성들이 아동의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래 갈등의 빈도 및 지속 시간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또래 지위와 관련된 연구들은 또래로부터 인기가 없는 아동이 인기가 있는 아동보다 또래 갈등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Putallaz, Hellstern, Sheppard, Grimes, & Glodis, 1995; Shantz & Shantz, 1985). 그러나 친구간의 갈등과 친구가 아닌 또래간의 갈등을 비교한 연구들은 갈등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친구가 아닌 또래와 보다는 친구간에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Hartup, Laursen, Stewart, & Eastenson, 1988; Nelson & Aboud, 1985), 갈등 발생의 빈도와 관련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놀이 상황처럼 개방된 공간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친구보다 급우간에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반면(Hartup et al., 1988; Vespo & Caplan, 1988), 실험실과 같은 구조화된 상황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친구간에 불일치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Gottman, 1983; Hartup, French, Laursen, Johnston, & Ogawa, 1993; Nelson & Aboud, 1985).

친구 관계에 따른 갈등 발생 빈도에서의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Hartup(1992)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 사회적 갈등도 같이 증가하는데, 관계적 상호의존성

1) 엄정례(1998)가 갈등 발생 빈도나 지속 시간과 같은 갈등 상황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나, 이는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relational interdependency)²⁾이 갈등 상황에서 환경적 상호의존성(setting interdependency)³⁾과 상호작용을 하여, 폐쇄된 조건에서는 친구간의 불일치가 또래간보다 더 갖고 강렬하며, 개방된 조건에서는 친구간의 불일치가 또래간보다 더 적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환경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폐쇄된 조건에서는 두 아동이 상호작용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이 때 발생하는 불일치가 상호작용을 깨뜨릴 위험이 비교적 적고 두 아동이 친구인 경우에 이들은 서로를 잘 알고, 또한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점들을 검증하는데 있어 이러한 상황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자주 격렬한 불일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갈등 발생 빈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서, 일반적으로 여아보다는 남아들간에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Miller, Danaher, & Forbes, 1986; Shantz, 198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로, 고등학교 2, 3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aursen, 1989)는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와 더 자주 불일치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⁴⁾.

갈등 쟁점에서도 성 차이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데, 학령 전 남아는 사물 통제와 관련된 갈등

에 더 많이 개입하고, 여아는 집단 가입이나 역할놀이 결정과 같은 사회적 통제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Hay, 1984; Miller et al., 1986). 아동기를 거쳐(Maltz & Borker, 1982), 청소년기 까지도(Raffaelli, 1990) 남아들간에 발생하는 불일치는 권력과 더 많이 관련되는데 반해, 여아들간에는 대인간 문제에 관한 불일치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갈등 발생 빈도, 갈등 쟁점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다(Laursen & Hartup, 1989; Sackin & Thelen, 198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래 갈등의 빈도와 지속 시간, 그리고 쟁점과 같은 갈등 상황의 특성은 아동의 또래 지위, 친구 관계, 그리고 성에 따라서 각각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또래 갈등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아와 여아가 경험하는 갈등이 다를 뿐 아니라, 아동이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는 아동인지, 거부되는 아동인지, 혹은 갈등 상대가 친구인지 단순한 급우인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갈등 상황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선행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거부되는 아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 경험을 하고, 친

-
- 2) 관계적 상호의존성은 두 아동이 선행 경험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상호작용이 상호적으로 규제되기를 기대할 때 존재하는 것으로, 아동은 단순한 또래와 달리 친구와는 상호 의존적이다. 즉, 이들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상호작용할 때 상호적이고 공정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낯선 아동이나 단순한 급우는 관계적으로 상호의존적이지 않다.
 - 3) 환경적 상호의존성은 동료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데 있어서의 자유로운 정도와,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상호작용을 그만두는 것에서의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한된 공간에서 두 아동을 책상에 앉히고 특정 시간동안 게임을 하게 할 때, 그 상황은 폐쇄되어 있고 대안 선택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 이 때 두 아동간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며, 이들간의 사회적 상호의존성은 최대가 된다. 반면에 운동장과 같이 개방된 조건에서 아동들은 상호작용 대상, 놀이감, 놀이 장소, 놀이 지속 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아동들은 상대방에게 의존적이지 않게 된다.
 - 4)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남아와 여아간에 갈등 발생 빈도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없다.

구끼리는 단순한 또래간보다 더 바람직한 갈등 경험을 한다면, 거부된 아동이 친구와 갈등을 일으킬 때와 단순한 또래가 그 상대일 때에도 갈등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간에 발생하는 또래 갈등 상황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밝히고, 이것이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또래 갈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Hartup(1992)의 상호의존성 가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또래 갈등의 발생 빈도는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또래 갈등의 지속 시간은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또래 갈등의 쟁점은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법

관찰 대상의 선정

관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서울 시내에서 중류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 한 곳과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곳을 임의 선정하여, 두 학교에서 4학년 13개 학급의 전체 아동 557명에게 또래 지명 검사와 상호적 친구 관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서 Coie와 Dodge(1983)의 구분 기준에 따라 아동

들을 인기, 보통, 무시, 거부, 양면성이 있는 아동의 다섯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고, 인기있는 아동과 거부되는 아동을 주 관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쌍을 이루어 상호작용을 할 아동으로 보통 지위의 아동을 선정하여 또래 지위를 통제하였다. 이렇게 1차로 선정된 인기있는 아동 또는 거부되는 아동과 보통 지위의 아동이 서로를 친한 친구로 지명한 경우에는 친구쌍으로, 그리고 또래 지명 검사에서 부정적으로 지명되지 않고, 상호적 친구 관계 질문지에서 상호 친구로도 지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우쌍으로 아동의 친구 관계를 규명하였다(상세한 방법은 김송이, 2001 참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관찰 대상은 총 148쌍으로(남아 73쌍, 여아 75쌍),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남녀별 최종 관찰 대상의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관찰 상황 및 범주

관찰 상황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녀에 따른 선호도와 선행 경험에서 차이가 없고, 초등학교 4학년 연령의 아동들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갈등 유발 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들과 남, 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즐겨 하는 놀이와 어떤 상황에서 친구들과 다투는지를 조사하고 대형 장난감 판매점에서 놀잇감들을 조사한 결과, 도미노 게임이 아동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남녀별 관찰 대상의 구성 (N=148쌍)

친구 관계	또래 지위	인기아/보통아	거부아/보통아
	친 구	집단 1 (남아 19쌍, 여아 20쌍)	집단 3 (남아 17쌍, 여아 19쌍)
급 우	집단 2 (남아 19쌍, 여아 18쌍)	집단 4 (남아 18쌍, 여아 18쌍)	

또래 갈등의 관찰

관찰 범주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의 또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Hartup과 동료들(1988) 및 Putallaz와 동료들(1995)의 관찰 범주를 기초로 하여, 예비 관찰 결과를 통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갈등 발생 빈도는 관찰 시간 동안 두 아동간에 발생한 모든 갈등 에피소드의 회수를 기록하였다. 갈등 지속 시간은 두 아동간에 발생한 각 갈등 에피소드의 시작 시점에서 종결 시점까지의 경과 시간으로, 10초 이내, 11초~20초 이내, 21초~30초 이내, 30초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갈등 쟁점은 또래 갈등이 무엇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련된 범주로, 권리 주장(자신의 영역이나 권리를 상대방이 침범하는 것과 관련된 갈등), 생각·사실·정보에 대한 불일치(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나 생각에서의 불일치에서 유발된 갈등), 제안이나 도움의 거부(한 아동의 제안이나 도움을 다른 아동이 거부할 때 발생하는 갈등), 심리적 상해(언어적인 공격을 하거나 무시하는 것에서 유발된 갈등), 신체적 상해(상대방을 때리거나 치는 것에서 유발된 갈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또래 갈등의 관찰은 2000년 10월 9일에서 11월 29일에 걸쳐 서울과 일산에 위치한 초등학교 두 곳의 교사 연구실과 과학실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실에는 하나의 책상에 의자를 두 개씩 놓은 책상 세트를 세 개 배치하고, 각 책상은 이동식 칠판으로 분리하고, 비디오 카메라 세 대를 장치해 놓았다. 실험자는 실험실에 온 아동들에게 도미노 게임에 대해서 설명한 후, 아동들을 미리 쌍으로 정해진 두 명씩 짜지워서 각 책상에 앉게 한 다음, 아동들에게 도미노 블록으로 구성해야 하는 네 가지 도안이 그려진 질문지를 제시하고, 두 아동이 상의하여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도안을 하나 정해서 도안대로 도미노 블록을 세우게 하였다. 관찰 기간은 실험자가 ‘이제 시작하세요’라고 말한 시점부터 도미노가 다 완성된 시간까지로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관찰 대상 아동들의 상호작용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관찰 단위를 이루는 또래쌍마다 도미노 구성을 완성한 시간이 다양했기 때문에 관찰 시간도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관찰 시간은 최소 8분 51초에서 최대 45분 37초였으며, 평균 관찰 시간은 23분 18초였다. 관찰 시간이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료 분석

또래 갈등 에피소드의 선정

녹화된 내용 중에서 분석 단위가 되는 또래 갈등 에피소드를 선정하였다. 갈등 에피소드는 ‘아동 A가 아동 B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말이나 행동을 시도하고, 아동 B가 이에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갈등 에피소드의 종결 시점은 Eisenberg와 Garvey(1981)의 기준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마지막 반대 행동이 일어난 시점으로 보고, 갈등이 분명하게 해결되었을 때, 다른 활동을 위해서 분쟁을 분명하게 포기하였을 때, 혹은 협상이나 반대와 같은 행위가 20초 동안 없거나 활동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을 때로 보았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연구 대상인 148쌍의 상호작용에서 또래 갈등 에피소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또래 갈등 에피소드는 갈등이 시작되기 20초 전에서 갈등 종결 20초 후까지 갈등 에피소드에서 보여진 행동과 언어를 전사하였다. 그리고 갈등 에피소드가 지속된 시간도 기록하였다.

부호화 과정

또래 갈등 에피소드를 전사한 내용은 본 연구

자가 사례별로 관찰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였다⁵⁾. 먼저 갈등의 쟁점을 구분한 후, 갈등 발생 빈도와 지속 시간을 기록하였다. 또래 갈등에 대한 부호화의 신뢰도는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1명간의 관찰자간 일치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관찰자에게 관찰 범주에 대해 설명한 후, 아동들의 상호작용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 한 개를 보며 관찰 상황에 대해 숙지시켰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급의 관찰 사례(14쌍의 자료)를 관찰범주에 따라 본 연구자와 관찰자가 각기 분류한 후 관찰자간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갈등 쟁점은 96.1%의 일치도를 보였다. 관찰자간에 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행동이나 진술에 대해서는 녹화된 자료를 근거로 합의 과정을 거쳤다.

통계적 분석

대상 아동에 따라 관찰 시간의 양과 발생한 총 갈등 에피소드의 빈도에서 큰 편차를 보였기 때문에 빈도 점수보다는 비율 점수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였다. 갈등 쟁점의 비율 점수는 각 아동에 의해 수행된 각 항목의 빈도를 그 범주의 총 빈도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두 명의 아동 간에 발생한 갈등의 발생 빈도와 갈등 지속 시간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중앙치, 최빈치, 최소값, 최대값 등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간에 발생한 갈등의 주요한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이러

5) 또래 갈등의 해결 방식, 갈등의 결과, 갈등 상황에서의 정서 등 또래 갈등의 전체 과정에 대한 관찰 범주와 부호화, 연구 결과 등을 김송이(2001)를 참조할 것.

한 갈등 상황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비율 점수를 성(2), 또래 지위(2), 친구 관계(2)에 따라 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사후 분석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또래 갈등의 발생 빈도가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의 발생 빈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결과 및 해석

또래 갈등의 발생 빈도

전체 148쌍 중에 3쌍(인기-친구 여아 2쌍, 인기-급우 남아 1쌍, 2%)에서 또래 갈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또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3쌍을 제외하고, 총 145쌍의 관찰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미노 게임을 하는 동안 145쌍의 또래들 간에 발생한 갈등 에피소드는 총 847회였으며, 한 쌍당 최소 1회에서 최대 20회의 갈등 에피소드가 발생하였다. 갈등 발생 빈도의 평균은 5.8, 중앙치는 5.0이었다. 따라서 도미노를 구성하는 동안 한 쌍당 평균적으로 5회 정도의 또래 갈등이 발생하

그 결과,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른 유의한 주효과($F_{1,137}=14.37$, $p<.001$)가 있어, 인기-보통아쌍($M=4.8$)보다 거부-보통아쌍($M=6.9$)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는 동안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과 친구 관계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_{1,137}=5.68$, $p<.05$)가 있어, 이를 그림 1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에는 친구쌍($M=5.6$)보다 급우쌍($M=6.3$)에서, 여아의 경우에는 급우쌍($M=4.8$)보다 친구쌍($M=6.8$)에서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t-검증으로 사후 분석한 결과, 여아의 경우에서만 친구쌍과 급우쌍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_{71}=2.52$, $p<.05$).

표 2 .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른 갈등 발생 빈도

친구관계 성 또래 지위	친 구			급 우			전 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n=36쌍)	(n=37쌍)	(n=73쌍)	(n=36쌍)	(n=36쌍)	(n=72쌍)	(n=72쌍)	(n=73쌍)	(N=145쌍)
인기-보통 (n=73쌍)	5.0 (2.9)*	5.4 (2.9)	5.2 (2.9)	5.2 (2.8)	3.6 (2.0)	4.4 (2.5)	5.0 (2.8)	4.5 (2.6)	4.8 ^b (2.7)
거부-보통 (n=72쌍)	6.2 (3.8)	8.1 (4.0)	7.2 (4.0)	7.3 (4.2)	6.0 (3.7)	6.6 (4.0)	6.8 (4.0)	7.0 (4.0)	6.9 (4.0)
전 체 (N=145쌍)	5.6 (3.4)	6.8 (3.7)	6.2 (3.6)	6.3 (3.7)	4.8 (3.2)	5.5 (3.5)	5.9 (3.5)	5.7 (3.6)	5.8 ^c (3.5)

* () 안은 표준편차임.

b 또래 지위에 따른 주효과임.

e 성과 친구 관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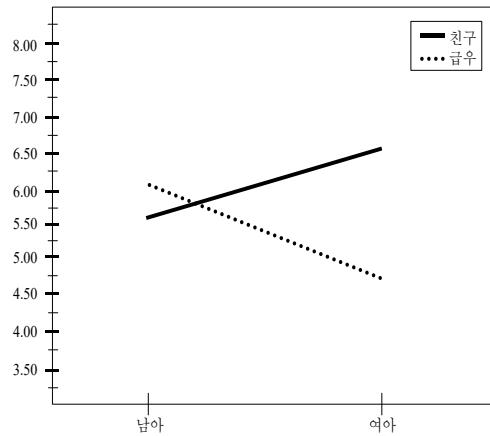


그림 1. 갈등 발생 빈도에서 성과 친구 관계간 상호작용 효과

또래 갈등의 지속 시간

갈등 에피소드가 지속된 시간을 살펴보면, 전

체 847회의 갈등 에피소드 중에서 10초 이내에 갈등이 종결된 것은 544회(64.2%), 11초에서 20초 이내에 종결된 것은 160회(18.9%), 21초에서 30초 이내에 종결된 것은 48회(5.7%), 그리고 갈등이 30초 이상 지속된 것은 95회(11.2%)였다.

아동마다 발생한 갈등 빈도가 다르므로, 각 갈등 지속시간별 빈도를 각 아동마다 발생한 총 갈등 발생 빈도로 나누어서 갈등 지속 시간별 비율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갈등 지속 시간별 비율 점수가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 갈등이 11초에서 20초 이내에 종결된 경우와 21초에서 30초 이내에 종결된 경우에서는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또래 갈등이 10초 이내에 종결된 경우($F_{1,137}=5.15$,

표 3. 아동의 성과 친구 관계에 따른 갈등 지속 시간별 빈도

친구 관계	성	남아(n=72명)		여아(n=73명)		전체(N=145명)	
		빈도	비율 (SD)	빈도	비율 (SD)	빈도	비율 (SD)
<u>친구 (n=73명)</u>							
친구	10초 이내	116	.58(.30)	174	.70(.22)	290	.65(.27)e
	11초~20초 이내	49	.24(.25)	42	.17(.19)	91	.20(.22)
	21초~30초 이내	12	.06(.08)	10	.04(.08)	22	.05(.08)
	30초 이상	24	.12(.17)	22	.09(.12)	46	.10(.15)e
<u>급우 (n=72명)</u>							
급우	10초 이내	147	.65(.24)	107	.62(.29)	254	.64(.27)
	11초~20초 이내	43	.19(.18)	26	.15(.18)	69	.17(.17)
	21초~30초 이내	13	.06(.09)	13	.08(.15)	26	.07(.12)
	30초 이상	22	.10(.15)	27	.16(.21)	49	.12(.19)
<u>전체 (N=145명)</u>							
전체	10초 이내	263	.62(.27)	281	.67(.26)	544	.64(.27)
	11초~20초 이내	92	.22(.22)	68	.16(.18)	160	.19(.20)
	21초~30초 이내	25	.06(.08)	23	.05(.12)	48	.06(.10)
	30초 이상	46	.11(.16)	49	.12(.18)	95	.11(.17)

e 성과 친구 관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임.

$p<.05$)와 30초 이상 지속된 경우($F_{1,137}=4.57$, $p<.05$)에서 아동의 성과 친구 관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2와 그림 3은 갈등이 지속된 시간에 따라 아동의 성과 친구 관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는 친구쌍 ($M=.58$)보다 급우쌍($M=.65$)간에 발생한 갈등이 10

중으로 사후 분석을 한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급우쌍과 친구쌍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는 급우쌍($M=.10$)보다 친구쌍($M=.12$)에서 갈등이 30초 이상 지속된 경우가 더 많았으나, 여아는 친구쌍 ($M=.09$)보다 급우쌍($M=.16$)에서 더 많았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여아의 경우에만 급우쌍과 친구쌍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_{71}=-2.1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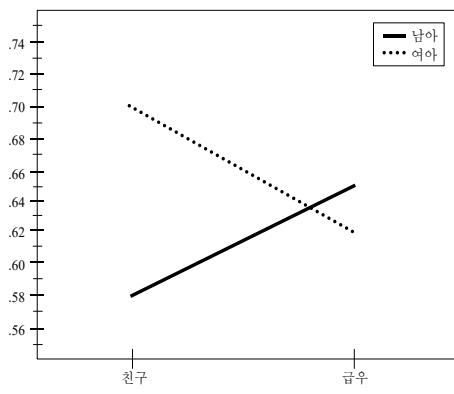


그림 2. 10초 이내에 해결된 또래 갈등에서 아동의 성과 친구 관계간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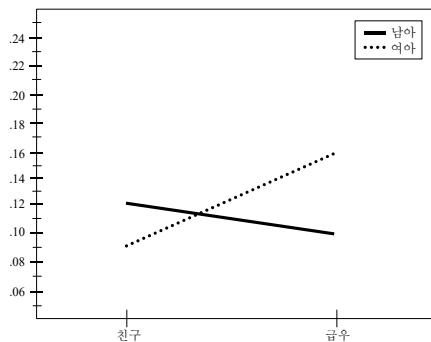


그림 3. 30초 이상 지속된 또래 갈등에서 아동의 성과 친구 관계간 상호작용 효과

초 이내에 종결된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여아는 급우쌍($M=.62$)보다 친구쌍($M=.70$)간에 발생한 갈등이 10초 이내에 종결된 경우가 더 많았다. t -검

또래 갈등의 쟁점

본 관찰 조정에서 발생한 847건의 갈등 예피소드를 갈등 쟁점에 따라 분류한 결과, 생각·사실·정보에 대한 불일치(50.1%)와 제안이나 도움의 거부(46.9%)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권리 주장(3.1%)이었다. 이밖에 심리적 상해로 인해서는 한 건의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신체적 상해로 인한 갈등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 쟁점이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각 아동별로 발생한 갈등 쟁점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 항목별 발생 비율을 산출하고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고). 신체적 상해와 심리적 상해로 인한 갈등은 발생 빈도가 낮아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권리 주장’에서만 또래 지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_{1,137}=5.50$, $p<.05$),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갈등 쟁점은 인기-보통아쌍과 거부-보통아쌍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권리 주장에서 인기-보통아쌍과 거부-보통아쌍간에 차이가

표 4.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의 쟁점

		친구 관계 성 또래 지위	친구 남 여 전체 (n=36쌍)(n=37쌍)(n=73쌍)	급우 남 여 전체 (n=36쌍)(n=36쌍)(n=72쌍)	전체 남 여 전체 (n=72쌍)(n=73쌍)(N=145쌍)
인기-보통 (n=73쌍)					
생각 불일치	.52(.32)*.50(.23) .51(.28)	.51(.25) .38(.35) .45(.30)	.51(.28) .44(.30) .48(.29)		
제안 거부	.48(.32) .48(.25) .48(.28)	.47(.25) .62(.35) .54(.31)	.47(.28) .55(.30) .51(.29)		
권리 주장	.00(.00) .03(.07) .01(.05)	.02(.05) .00(.00) .01(.04)	.01(.04) .01(.05) .01(.04)b		
거부-보통 (n=72쌍)					
생각 불일치	.45(.33) .46(.25) .46(.29)	.46(.19) .46(.28) .46(.23)	.46(.26) .46(.26) .46(.26)		
제안 거부	.46(.31) .52(.25) .49(.28)	.48(.19) .51(.25) .50(.22)	.47(.25) .52(.25) .50(.25)		
권리 주장	.06(.13) .01(.03) .03(.09)	.06(.10) .03(.08) .04(.09)	.06(.11) .02(.06) .04(.09)		
전체 (N=145쌍)					
생각 불일치	.49(.32) .48(.24) .48(.28)	.49(.22) .42(.31) .45(.27)	.49(.27) .45(.28) .47(.27)		
제안 거부	.47(.31) .50(.25) .49(.28)	.47(.22) .57(.30) .52(.27)	.47(.27) .53(.28) .50(.27)		
권리 주장	.03(.09) .02(.05) .02(.07)	.04(.08) .02(.06) .03(.07)	.03(.09) .02(.05) .03(.07)		

* () 안은 표준편차임.

b 또래 지위에 따른 주효과임.

나서, 인기-보통아쌍($M=.01$)보다 거부-보통아쌍($M=.04$)에서 권리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문 경우였다. 도미노 게임에서 아동 한 쌍당 평균 5.8회(중앙치는 5.0)의 갈등 에피소드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Parke와 Slaby(1983)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시간당 2회 정도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하였으며, Hartup과 동료들(1993)은 실험실 상황에서 보드 게임을 하는 동안 또래간 불일치가 시간당 35회 정도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엄정례(1998)는 유치원 아동들이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3회 정도의 또래 갈등이 발생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평균 관찰 시간이 23분 18초임을 감안할 때, 시간당 13회 정도의 또래 갈등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연 상황보다는 갈등 유발 상황이 고안된 실험실 상황에서 또래간에 갈등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함을 알 수

논의 및 결론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또래 갈등 상황의 전반적인 특성과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도미노 게임을 하는 동안, 전체 148쌍의 아동 중에 3쌍을 제외한 145쌍에서 총 847회의 또래 갈등이 관찰되었다. 또래 갈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세 쌍은 인기-친구 여아 2쌍과 인기-급우 남아 1쌍으로, 세 쌍 모두 또래에게 인기가 있는 아동이 친구나 같은 학급의 또래와 쌍을 이

있으며, 이는 폐쇄된 상황에서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Hartup & Laursen, 1993)과도 일치한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본 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학령기 아동들에게 있어 갈등이 비교적 자주 경험되는 생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 발생 빈도는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인기-보통아쌍보다 거부-보통아쌍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는 동안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하였다(4.8회 대 6.9회). 이는 또래 지위와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Putallaz et al., 1995; Shantz, 1986)과 일관된 결과이며, 또한 갈등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세 쌍이 모두 인기아쌍이라는 본 연구 결과도 역시 이를 입증해 준다 하겠다.

다음으로 갈등이 지속된 시간을 살펴보면, 발생한 갈등 에피소드 중 64%가 10초 이내에 종결되었고, 11초에서 20초에 종결된 것은 19%, 21초에서 30초에 종결된 것은 6%, 그리고 30초 이상 갈등이 지속된 것은 11%였다. 자유놀이 시간 동안 학령전 아동들을 관찰한 Dawe(1934)는 갈등이 평균 24초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갈등 정의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아동들을 관찰한 Green(1933)은 평균 22.7초 동안 갈등이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엄정례(1998)는 갈등 지속 시간을 10초 이내와 10초 이상으로 구분하여 관찰한 결과, 대략 절반 정도의 갈등이 10초 이상 지속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들마다 갈등 지속 시간이 다양해서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연구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또래 갈등이 대체로 빨리 종결된 것은 학령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의 차이와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자연 관찰과 실험실 상황에서의 관찰에서의 차이에 기인했을 수 있다. 특히 본 관찰 상황에서 유발된 갈등이 과제의 특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될 만큼 그리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갈등 빈도와 지속 시간 모두에서 나타난 아동의 성과 친구 관계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여아의 경우 친구쌍에서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였지만 더 빨리 종결되었고, 급우쌍에서는 갈등이 더 적게 발생하였지만 지속 시간은 더 길었다. 남아의 경우에는 친구쌍과 급우쌍간에 갈등 발생 빈도는 비슷하였지만, 친구와의 갈등이 급우와의 갈등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었으며, 급우와의 갈등은 더 빨리 종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나(Miller et al., 1986; Murphy & Eisenberg, 1996), 폐쇄된 상황에서는 친구가 아닌 또래보다 친구간에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Hartup, 1992) 모두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여아의 경우 친구쌍에서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한 것과 남아의 경우 친구쌍에서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된 본 연구 결과는 본 연구가 폐쇄된 조건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Hartup(1992)의 상호의존성 가설에 비춰서 설명해 볼 수 있다. Hartup (1992)은 폐쇄된 상황이 서로 친구 관계인 두 아동이 상호작용을 계속 지속하게 하고, 따라서 아동들은 이 때 발생하는 갈등이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깨뜨릴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인식하여, 친구가 아닌 또래보다 갈등 유발 요인들에 대해 토론을 하는 데 있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

에 갈등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으며 더 강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특히 친구들은 서로의 비판으로 상처나 보복을 받을 위험을 무릅 쓸 만큼 서로에 대해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갈등을 통해서 친구 관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비판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Nelson & Aboud, 1985; Selman, 1980).

또한 여아의 경우 급우쌍에 비해 친구쌍에서 더 찾긴 했지만 갈등이 더 빨리 종결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아들이 주로 단짝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며,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Murphy & Eisenberg, 1996; Maccoby, 1990), 친구와의 심각한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래 갈등의 발생 빈도와 지속 시간에서 여아-친구쌍과 여아-급우쌍간의 차이가 남아-친구쌍과 남아-급우쌍보다 더 큰 것도 여아들의 경우 남아들보다 관계 지향적이고, 친한 친구 외에 다른 또래들에게는 베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Maccoby, 1990). 한편, 남아는 여아보다 더 큰 집단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권력과 지위에 관심이 많다(Murphy & Eisenberg, 1996). 그리고 어느 정도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특성을 띠는 친구 관계와 달리, 급우쌍의 경우에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적인 위계 관계에 기초한다(Hartup, 1977). 그러므로 두 아동간에 위계가 형성되어 있는 남아들의 급우쌍에서 발생한 갈등은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빨리 종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쌍에서 발생한 갈등의 주된 쟁점은 생각·사실·정보에 대한 불일

치(50%)와 제안이나 도움 거부(47%)였으며, 권리 주장으로 인한 갈등은 전체 발생한 갈등 중 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상해로 인한 갈등은 한 건이, 신체적 상해로 인한 갈등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사물이나 영역의 소유와 같은 문제보다는 의견 불일치나 타인의 행동 통제와 관련된 문제가 또래 갈등 쟁점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Hay, 1984; Shantz, 1987)와 일치한다. 또한 본 관찰 과제가 두 아동이 협동하여 도미노를 도안대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도미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갈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 쟁점이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들간에 발생한 갈등 쟁점 중 권리 주장에서만 또래 지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인기-보통아쌍보다 거부-보통아쌍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영역을 침입하는 것과 관련된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권리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거부-보통아쌍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결과는 다음의 두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거부아의 경우 자기지향적이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특성(Putallaz & Sheppard, 1990)으로 인해서 상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연구에서 갈등을 시도한 아동을 구분해서 갈등 쟁점을 분석한다면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아동들은 이전의 상호작용에 기초해서 서로에 대한 도식이나 기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도식에 기초해서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한다(Hartup & Laursen, 1993). 특히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평판은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과 관련되며(Hartup, 1983), 아동들이 서로를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평판은 더 빨리 형성되고 안정적이 되고(Coie, Dodge, & Kupersmidt, 1990; Dodge, 1983), 이러한 사회적 평판에 기초하여 아동들은 또래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Hartup & Laursen, 199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도 거부아와 짹을 이룬 아동이 거부아에 관한 사회적 평판으로 인해서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부아동의 행동을 더 적대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갈등이 더 많이 유발되었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기아와 짹을 이룬 상대 아동은 인기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더라도 후광 효과로 인해서 이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들에서는 남아들간의 갈등은 권력에 더 많이 관련되는 반면, 여아들은 대인간 문제에 더 많이 관여된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갈등 쟁점에서의 성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Raffaelli, 199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갈등 쟁점에서 성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들이 일상 생활에서 또래간에 발생하는 갈등 주제들을 조사한 것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 도미노 게임이라는 과제를 통한 아동들간의 갈등을 관찰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Maltz와 Borker(1982), Raffaelli(1990) 등이 여아들간에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한 대인간 문제로 인한 갈등은 본 연구 과제에서는 잘 나타날 수 없는 주제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친구 관계와 또래 지위, 그리고 성을 함께 고려해서 연구함으로써 아동들이 경험하는

또래 갈등 상황의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갈등 지속 시간과 발생 빈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성과 친구 관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는 다른 양상을 띠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다시 기울이게 하였으며, Hartup(1992)의 상호의존성 가설에 대한 타당성있는 증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친구간의 갈등 발생 빈도와 관련해서 관계적 상호의존성과 환경적 상호의존성 외에도 아동의 성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도록 상호 의존성 가설의 수정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실험실 상황에서 또래 갈등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또래 갈등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미노 게임을 하는 상황에만 국한하여 관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 상황의 특수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실 관찰의 제한점을 유념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관찰을 통한 자료의 보완과 비교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 또래 갈등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기술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또래 갈등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간의 상호작용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며, 인기아씨보다 거부아씨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 여아는 친구쌍

에서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하였지만 더 빨리 종결되었고, 남아는 친구쌍과 급우쌍간에 발생한 갈등의 빈도는 비슷하였지만, 친구간의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거부아가 인기아에 비해 갈등에 더 자주 노출됨을 알 수 있으며, Hartup의 사회 상호의존성 가설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제안되었다.

참 고 문 헌

- 김송이(200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 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김송이·박경자(200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아동의 갈등 해결 방식. 아동학회지, 22(4), 69-84.
- 배선영(2000).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엄정례 (1998). 유아의 또래간 갈등상황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제인 (1994). 아동의 사회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Origins, consequences, and intervention*(pp. 17-5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we, H. C. (1934). An analysis of two hundred quarrels of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 139-157.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289-1309.
- Eisenberg, A. R.,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 Gottman, J. M. (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2), Serial No. 201).
- Green, E. H. (1933). Friendships and quarrels among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 237-252.
- Hartup, W. W. (1977).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implications and interactions in same- and mixed- aged situations. *Young Children*, 32, 4-13.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03-196). NY: Wiley.
- Hartup, W. W. (1992).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C. U. Shantz & W. W.

-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 186-21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hnston, M. K., & Ogawa, J. R. (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 445-454.
- Hartup, W. W., & Laursen, B. (1993). Conflict and context in peer relations. In C. Hart(Ed.), *Children on playgrounds: Research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pp. 44-84). Ithaca: SUNY Press.
- Hartup, W. W., Laursen, B., Stewart, M. I., & Eastenson, A. (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590-1600.
- Hay, D. F. (1984). Social conflict in early childhood. In G. Whitehurst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1, pp.1-44). CT: JAI.
- Laursen, B. (1989).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Laursen, B., & Hartup, W. W. (1989). The dynamics of preschool children's conflicts. *Merrill-Palmer Quarterly*, 35, 281-297.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altz, D., & Borker, R. (1982). A cultural approach to male-female miscommunication. In J. J. Gumperz (Ed.), *Communication, language and social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and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43-548.
- Murphy, B. C., & Eisenberg, N. (1996). Provoked by a peer: Children's anger-related respons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42, 103-124.
- Nelson, J., & Aboud, F. E. (1985). The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 between friends. *Child Development*, 56, 1009-1017.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P. H. Mussen(Series Ed.) & E. M. Hetherington(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547-641). NY: Wiley.
- Putallaz, M., Hellstern, L., Sheppard, B. H., Grimes, C. L., & Glodis, K. A. (1995). Conflict, social competence, and gender: Maternal and peer contexts. *Early*

- Education and Development*, 64), 433-448.
- Putallaz, M., & Sheppard, B. H. (1990). Children's social status and orientations to limited resources. *Child Development*, 61, 2022-2027.
- Putallaz, M., & Shep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 330-355). NY: Cambridge University.
- Raffaelli, M. (1990). Sibling conflict in early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Sackin, S., & Thelen, E. (1984). An ethological study of peaceful associative outcomes to conflict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098-1102.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Y: Academic Press.
- Shantz, C. U. (1987). Conflict betwe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283-305.
- Shantz, C. U., & Shantz, D. W. (1985). Conflict between children: Social - cognitive and sociometric correlates. In M. W. Berkowitz(Ed.), *Peer conflict and psychological growth: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pp. 3-21). SF: Jossey-Bass.
- Shantz, D. W. (1986). Conflict, aggression, and peer status: An observa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7, 1322-1332.
- Vespo, J. E., & Caplan, M. Z. (1988, March). Preschoolers' differential use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Charleston, SC.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 Vol. 15, No. 2, 1 - 17

Frequencies, duration, and issues of peer conflicts according to children's peer status and friendship

Song-Yee Kim · Kyung-Ja Park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 Yonsei University

Frequencies, duration, and issues of peer conflicts were observed to investigate whether those characteristics of peer conflicts were different by child's sex, peer status, and friendship. One hundred and forty eight dyads in 4th grade were selected by child's sex, peer status, and friendship. Each dyad was placed in a small laboratory to play a Domino game. The dyad's interactions were videotaped, and peer conflict episodes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duration, and issues of the conflicts. Peer conflicts occurred rather frequently in dyadic interactions between school-aged children. Frequencies of the conflic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peer status. Conflicts occurred more frequently in rejected-average pairs than popular-average pairs. Frequencies and duration of the conflicts differed by the child's sex and friendship. For girls, conflicts occurred more frequently but ended more quickly with friends than conflicts occurred with classmates. However, for boys, conflicts occurred with friends lasted longer than conflicts with classmates, even though frequencies of conflicts with classmates were similar to conflicts with friends.

Keywords: peer conflict, peer status, friendship